윌리엄 브래넘이 본 환상들

미국 인디애나 주 제퍼슨빌

60-0930

1 지금 이 테이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제작되는 것이고, 리 베일 형제님에게 원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베일 형제님은 제게, 여기 계시는 머써 형제님 앞에서, 제가 전에 보았던 환상들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물론 환상들은... 제가... 제가 기억해 낼 수 있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가 환상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상들은 항상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회심한 후가 베일 형제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제가 교회에서, 여기 제퍼슨빌에 있는 와트 스트리트에 있는 침례교 교회에서, 로이 데이비스 박사에게, 목사 임명을 받은 후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지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임명을 받고 나서 며칠 후입니다. 저는... 저는 병원에 누워 있는 한 노인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사람은 몸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석에서 치유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이틀쯤, 그 환상을 본 후에, 저는 뉴 앨버니에서 수도, 가스, 전기세가 체납된 곳들에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그때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을 발견할 때마다, 아시죠, 들어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3 그런데 저는 자니 팟츠 씨에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제 생각에, 한 칠십 내지 팔십은 족히 되셨을 겁니다. 그분은 연로한 검침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분을 검침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책상에 앉아 사무를 보게 했습니다,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경우 고객들의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일들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는 다른 검침원이 빠뜨린 곳에 가서 검침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그는 말하길, 어떤 사람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낡은 마차에다... 옛날에는, 두 마리의 말을 끌고, 골목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에드워드 제이 머럴 씨라는 흑인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뉴 앨버니 클라크 스트리트 1020번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명의 백인에게, 백인 아가씨와 청년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운전하던 청년이 차를 제어하지 못했고, 그를 그 마차 바퀴 밑에서 뭉개지게 했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뼈란 뼈는 거의 다 부러뜨렸고, 특히 가슴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제 자리에서 탈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태인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4 그런데 팟츠 씨는, 거기 뉴 앨버니에 있는 병원을 지나다가, 그에게 주님께서 저를 다루고 계시다고 말해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환상에서 봤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저는 좀 가기가 겁났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가는 것이, 처음으로 해 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회심한 키가 작은 제 친한 친구인 조지 디아크라는 프랑스계 친구에게 찾아가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 조지 형제, 형제님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해.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나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알아 둬, 이 사람은 낫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나을 때는... 나는 두 명의 백인이 들어와 침대 건너편에 서기 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난 그 환상에서 본 그대로 해야만 하니까."하고 말했습니다.

5 저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머럴 씨를 찾았습니다. 거기로 갔는데, 그분의 아내는 제게 그가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엑스레이 결과 뼈 몇 개가 폐 바로 가까이에 있어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움직이면, 폐에 구멍을 뚫을지도 모르고, 그는 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는입 주위에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도 조금씩 출혈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기에 이틀 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순 다섯 살쯤, 제 짐작입니다, 예순 살이나 예순 다섯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노인이고, 콧수염이 길었고 흰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도 반백이었습니다.

6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이 남자분에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하여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었던 그 두 젊은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 나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를 다시 침대에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인턴 한 사람이 들어와, 그를 침대에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나왔고, 굉장히 흥분을 시켰습니다. 제가 가서...

7 저는 조지 형제에게 말했고...그때 수녀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곳은 카톨릭 병원이었습니다, 제게 병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흥분시켰다고. 왜냐하면, 그는 열이 있었습니다, 사십 도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들이 그를 다시 침대에 눕혔을 때; 사제와, 그 곳은, 그 의사들이 그를 침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체온을 쟀을 때, 그에게는 열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 환상을 직접 본 사람들, 그 환상이 일어난 것을 보거나, 그 일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 계단에 서서 조지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보게. 그는 갈색 외투를 입고 실크 모자를 쓰고 나타날 거야. 잠시 후에 이 계단으로 걸어 내려올 거야."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8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제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침에, 새벽이 될 때쯤, 끔찍하게도 불구가 된 한 여자분이 낫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좀 알아봐야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뉴 앨버니에 있는 에이쓰 스트리트 주변에 있는, 수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두 가구가 살고 있어서, 양쪽 다 끊어버렸을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한 쪽은 이사를 나갔고; 다른 한 쪽은, 그 집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 예쁘장한 어린 소녀가 문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그러시죠?"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수도가 끊겼는지 보려고 하는데, 물을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러죠"하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뇨, 물이 나와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던 그 애의 어머니는, 이름이 메리 더 오하니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르미니언 파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뉴 앨버니 야구, 미식 축구에서 풀백을 맡아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도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길... 도로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병원에서 그 사람을 낫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하세요."하고 말했습니다.

9 그래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불구가 되어서 누워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녀가 태어난 이후로, 십 칠 년 동안을 병상에서 불구가 되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십 칠 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하길... 그녀는, "당신이 그 남자를 고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부인. 저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픈 남자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제게 말해 준 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을 봤었을 뿐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될지 몰랐었습니다; 환상이라고 해야할지, 뭐라고 해야할지.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년이었고, 미혼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 이 부인은 제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주님이 다시 오라고 보여주시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기도하러 나갔을 때... 조지 형제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형제에게 말했던 바로 그 여자분이야. 바로 그 여자야. 나와 같이 가자."하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열 일곱 살된 소녀는, 물론, 저도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섯, 여덟 살이나 그쯤 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집안에 트리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이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서서, 절 비웃었습니다. "자기들의 엄마를 낫게 하겠다니.

11 " 저는 딸에게 주님께서 어머니를 낫게 해 주실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형제님과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 제가 보는 그 천사가, 여러분이 저 사진에서 보시는 그 천사가, 그것이 침대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오하니언 부인."하고 불렀습니다. 자, 현재 그 부인은 뉴 앨버니에 사십니다, 그녀와 남편과 가족이 다. 그래서 저는, "오하니언 부인, 주 예수께서는 저를 보내셨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여기로 오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인은 '나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발로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으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오그라 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심장부분에 자기의 아르미니언 성경을 안고는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탄은 그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여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있어, 그녀는 저렇게 높은 침대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 거야." 저는 잠시 겁이 더럭 났습니다. 저는 항상 그 환상들이,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환상들이 항상 옳은 것만을 얘기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녀가 침대에서 내려오도록 놔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증인되시는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그 침대에서 뛰어내렸고, 두 다리가 뻗어 나왔습니다. 딸은 외마디소리를 내뱉더니, 머리카락을 당기면서 거리로 뛰어나가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여기 저기서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십 칠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방안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소녀를 알게 되었고, 사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테이프에 녹음될 내용이 아니지만, 저는 그 소녀와 사귀었습니다.

12 그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삼 주 후에, 저는 어느 날 저녁에 제 어머니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도무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승리감을, 뭔가 뚫고 나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더라도...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자버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집에서 거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방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밤 한 시쯤 되었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엄마는 옷을 개어, 의자에다 쌓아놓곤 하셨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흰 것이 제게로 오는 것을 보았고, 제가 의자에 쌓여있는 옷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구름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아시겠죠.

13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있는위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에 서 있었는데, 조그마한 방이 두 개 나란히 있는, 흔히 '엽총' 집이라고 부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한 쪽벽 아래쪽 절반은 빨간색 나무 패널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 오른쪽으로는 조그마한 철 기둥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까만 머리 여자가 기대어 서 있었고... 그 방은 부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엌문에 기대어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서 있었고, 저에게 한 아기를 데리고 왔고, 뭔가가 그 조그마한 가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의 왼쪽 다리는 굽어서 감겨 있어서, 그 조그마한 몸통 쪽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반대편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두 팔도 역시 몸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몸은 비틀어지고 굽어져서 여기 그의 목이 있는 데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왼쪽으로는, 한 노부인이 앉아 있는데, 안경을 벗어서, 안경에 있는 눈물이나 뭔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빨간색 침대소파가 있었고, 그것은 의자와 색이 잘 어울리는 것이었고, 한 젊고 구불거리는 금발 머리 청년이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오른쪽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 서 계시는 분은 바로 그 주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저에게, "이 아기가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그 아기에게 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가 펄쩍 내려왔고,... 자기 아버지의 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오른쪽 다리가 굽은 게 펴졌고, 오른쪽도 굽은 게 펴졌습니다, 오른쪽 팔도 펴졌습니다. 아기가 한 발짝 더 내디디자, 왼쪽도 펴졌습니다. 다시 한 걸음 떼어놓자, 다른 쪽도 펴졌습니다, 몸통, 중간 부분도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조그마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브래넘 형제님, 저는 완전히 나았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기는 파란색 골덴 가슴받이가 달린, 가슴에 턱받이가 달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애였고, 입이 아주 아주 작았습니다.

14 그때 주의 천사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멀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저를 오래된 묘지 옆에 앉게 하셨고,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묘비에 새겨진 숫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것이 너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절 또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게가 두 개쯤 있는 소읍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게는 정면이 노란색이었고, 벽에는 노란색 판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걸어갔, 아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나이든 남자가 나왔는데, 파란색 골덴 재킷을 입고, 아니 파란색 청 재킷과 파란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노란색 골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큼직하고 흰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저 사람이 길을 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에 제가 이른 곳은, 저는 제가 좀 뚱뚱하다 싶은 젊은 여자를 따라서, 어떤 방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으로 들어가자, 방의 벽지에 있는 무늬들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문 위쪽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쓰인 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크고, 낡은, 철 기둥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장작으로 때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에는 한 열다섯 살 가량 되어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아마비나 뭐 그런 병에 걸려서 오른 쪽 다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은 옆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아래쪽에서 짧게 매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그녀는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녀는 여자애처럼 보이는 머리카락과,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여자애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제게, "그 소녀가 걸을 수 있겠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가서 저 애의 배에다 두 손을 얹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가 확실하게 소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녀의 배에 두 손을 얹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잠옷 바지가 올라가 여자애들의 무릎인 동그란 무릎이 보였습니다, 아시죠, 남자애들의 무릎은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걸어서 저에게 걸어왔는데, 자기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금발머리였고,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 세일럼에 사는데, 결혼을 해서, 서너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15 그래서 제-제-제가 현실로 돌아왔고.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브래넘 형제님..."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빌 형제! 오, 빌 형제!"하고. 그건 제 엄마가 절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면서, 아시죠, 뭐랄까 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옆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네 문에 누가 와서 두드리고 있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 형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잔 에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삽니다. 그래서 그는, "빌 형제, 절 기억하지 못하시죠."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뇨. 기억하지 못하겠어요."하고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 침례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지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여기서 얼마 전에 한 남자를 살해했어요. 싸움판에서, 주먹으로 때려서 그 사람의 목이 부러졌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하나, 맏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내가 집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의사는 방금 떠나면서, '그 아이는 양측 폐렴에 걸렸어요.'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저-저-저는 갑자기... 형제님 생각이 났어요. 형제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위해

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래함 스넬링과는 사촌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함 스넬링, 지금은 그래함 스넬링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는 내 사촌이에요. 그를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는 곳에서 일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데리러 가는데요. 같이 가시겠어요?"하고 물었습니다.

16 저는,"그래요, 에밀 씨, 금방 옷을 입고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차를 가지고 형제님을 싣고 갈게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함을 데리고 오자마자. 저는 두 사람이 다 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니?"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아기가 곧 낫게 될 거예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낫는다고?"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드릴게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뒤에, 그가 문을 두드렸고, 그래함 형제님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조선소로 알고 있는 곳 근처로, 그때는 오래된 하워드 조선소였습니다. 저는, "에밀 씨...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유티카 위예요."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엽총' 집에 사시죠, 조그마한 방 두 개가 있는."하고 말했습니다.

"네."

"산 위에 있구요."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당신의 집 하단 패널은 은촉이음으로 만들어졌고, 빨간색 페인트를 칠했죠."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맞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17 저는, "그 어린 아기는 철 기둥 침대에 누워 있죠. 그리고 그가 집안에서 입고 있는 옷은, 적어도, 파란색 골덴 가슴받이가 붙은 바지를 입고 있구요."하고 말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그 아기는 체구가 아주 작고, 세 살 쯤 되었죠. 그리고 입도 좀 작고, 입술이 얇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연갈색이구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건 사실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 부인께선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방 안에는 빨간 색 침대소파 하나와 빨간 색 의자가 하나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래넘 형제님, 언제 제 집에 와 보셨나요?"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요."하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요?"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니, 형제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영적으로 갔다왔다는 거예요. 에밀 씨, 당신은 제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주었다면요. 그건... 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거든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그런 일이 형제님에게 일어났단 말입니까, 브래넘 형제님?"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에밀 씨, 제게 말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제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당신의 아기는 낫게 될 거예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를 세우더니, 운전대에 푹 엎드리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주님, 저를 다시 돌이키소서."하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주님께서 제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18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한 혼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모든 것이 환상에서 본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노부인만 거기에 없었습니다. 흥분되어, 너무나도 흥분되어, 저는, "아기를 데려오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힘들게 몰아쉬는 숨"이 그 애에게서 나오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그의 작은 목구멍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기를 데리고 오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 환상이 성취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19 베일 형제님, 이 패드는 여기에 놓여져 있어야 했다면, 저는 그 패드가 거기에 놓여질 때까지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환상에서 본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데려오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가 그 아기를 제게 데리고 왔고, 저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숨이 가빠했고, 그들은 애를 쓰면서 흔들고,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그 아이가 숨을 쉴수 있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군."하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저는, "노부인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노부인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데려가 누였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코 밑에다 뭘 바르기도 하고 등등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그저-그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 내 어리석은 행동으로, 내가 너무나도 흥분해서,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을 오용했어."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 이 일을 보면, 아시겠죠, 베일 형제님, 제가 왜 기다리는지. 저는 누가 제게 말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제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절대로 제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방법이 아무리 나아 보인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기다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그래서 저-저는 바로 여기서, 아주, 아주, 여러 해 전에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정확히 행하고, 주님이 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행하지 않는다는 교훈을요.

21 그 아기는 간신히 호흡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은혜가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앉았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애의 생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애가 이제는 당장이라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브래넘 형제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빌 형제,"라고 그들은 절 불렀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하고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함 스넬링 형제는 직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밀 씨는 그를 데려다줘야 했고, 그러면 저도 그 집을 떠나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함 형제는 금발에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침대소파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함 형제가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노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노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 씨는 외투를 입었습니다.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만일 그래함 형제님이 떠난다면, 그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만일 그 노부인이 온다할지라도, 그래함 형제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밀 씨는, "브래넘 형제님,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 "빌 형제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모셔다 드릴까요?"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젊은 부부였기 때문에, 그 애와 그 애 엄마와 저만 그 집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게 맘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는, 아마 스물 다섯 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아뇨. 저는-저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그는, "형제님, 빌 형제님, 괜찮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 어머니는 긴장된 모습으로 왔다갔다했고, 애써...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 아기는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당장에라도, 이렇게, 숨을 꼴깍 들이쉬고는, 죽어갈 것처럼...[브래넘 형제가 숨 넘어가는 숨소리를 낸다-주] 그 애에겐, 이 정도의 숨만 남아 있었습니다.

22 아무런... 그 당시에는,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고약 같은 것을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애는 여러 날 동안을 그것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애는 죽었 아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함이 가면..."

그래함은 외투를 입었고, 문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어, 금세 돌아올게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여기에 있어야 하고, 어쩌면 다시, 밤새도록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환상을 기다리면서,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돌아서, 그 애의 할머니가 오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나중에, 그 분이 할머니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그래함이 저 문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이 때입니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항상 앞문으로 옵니다. 그러나, 어찌 된 건지, 그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뒷문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조그맣고 낡은 집입니다. 그녀가 문간에 이르자, 딸이 달려가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 딸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러자 그래함 형제가...

그때 노부인이, "애는 좀 차도가 있니?"하고 물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23 저는, "지금 될 거라면, 이제, 그래함이 나가지만 않는다면."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래함 형제님이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그가 앉을 수 있도록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애는 그와 혈연관계가 있었으므로, 그렇죠, 그도 역시 따라 울었고, 그가 앉아 있기로 되어 있는 그 침대소파에앉았습니다.

저는, "자, 그 노부인이 돌아와서 이 빨간 의자에 앉기만 하면!"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외출할 준비가 된 에밀 씨가 서 있던 문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파 속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데 그 노부인이 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함도 앉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의 어머니는 한 손을 문에 올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인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안경에서, 눈물이 아니고; 추운데서 들어왔으므로 안경에 김이 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경집을 찾아서 조그만 손수건을 꺼내서, 아니, 조그마한 천을 꺼내서, 이 안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넘 형제가 손가락으로 한 번 딱 소리를 낸다-주] 형제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에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밀 씨, 아직도 저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론이죠, 브래넘 형제님."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말해도 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환상에 앞질러서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낫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도 저에 대해서 신뢰하신다면, 제게 아이를 데려오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저는 그때 일이 올바로 진행됨을 알았고, 아시죠, "가서, 애를 데려오세요."하고 말했던 겁니다.

그는, "뭐든지 하라는대로 하겠습니다, 빌 형제님. 애를 안아 올리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이를 안아 올리자, 그 애는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를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애를 일으켜 품에 안고 제게로 데리고 왔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에게 손을 얹고, "주님, 주의 종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주님의 환상을 앞질러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십시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곧바로, 그, 그 조그마한 애가 두 팔을 아빠에게 두르고는,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하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에밀 씨, 그 애를 가만 놔두세요. 그 애는 그것이 떠나려면 삼일이 지나야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풀리는 데는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24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교회에서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는 다시 갈 겁니다." 그건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시장을 봐서 한 바구니 가량 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에 갈 때 다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집 주위에 계십시오. 제가 그 곳에 이르면, 그 집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어린애가 마루에서 달려오는데, 초콜릿 우유나 뭐 그런 것을 마셔서, 여기에 콧수염처럼 자국을 남긴 채 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아시겠죠? 제 손에 자기 손을 넣고는, '빌 형제님, 저는 완전히나았어요.'하고 말할 겁니다. 이 세 살배기 애가. 그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25 지금의 제 아내, 미다는,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 일입니다, 같이 갔던 무리 속에 끼여 있었습니다. 한 트럭에 다 태우고 가서 집 부근에 있게 했습니다, 그 날 저녁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퍼블릭 서비스 회사 트럭을 몰고 갔을 때 절 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가용 차가 없었습니다. 차 뒤에는 타르가 묻어있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 날 제가 차를 끌고 가서, 고치고 했던 곳에서 묻힌 거죠. 집 앞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세웠습니다. 현관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바닥에 까는 깔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루를 가로질러 오면서, "어머나, 빌 형제님이시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사람들은 여러 개의 창가에서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애는, 구석에서 놀고 있었고, 삼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루를 천천히 걸어오더니, 손을 올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초콜릿 우유를 마시고 있었는지, 입 위에 수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초콜릿 우유 때문에. 제 손에 자기 손을 밀어 넣고는, "빌 형제님, 저 완전히 나았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26 그 날 저녁, 교회에서, 전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가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여, 저는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하고 말했습니다.(Eng. p. 12)

그런데 저는 퍼블릭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을 기억하는데, 그 후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그 건물을 떠나기,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에 사시는 허브 스캇 씨, 그는 제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리?"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네."하고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자네에게 온 편지 한 통이 있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허비. 잠시 후에 가져갈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할 일을 하러 갔었습니다, 검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다른 일들을 마치러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가서 편지를 들고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브래넘 씨께, 제 이름은 네일입니다. 해롤드 네일 부인입니다. 우리는 사우쓰 보스턴이라는 곳에 삽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히 당신이 쓰신 조그마한 책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라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전 날 밤, 우리 집에서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들었습니다."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열 다섯 살 된 딸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는 당신을 모셔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군요. 그래주실 수 있을까요? 인디애나주 사우쓰 보스턴에서, 해롤드 네일 부인 올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바로 그 소녀입니다. 바로 그 소녀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했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소녀예요."하고 말했습니다.

27 그 날 밤,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바로 그 곳입니다." 저는 "누구 사우쓰 보스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라이트 형제님께서, 여러분도 다 그 형제님을 아시죠, "브래넘 형제님, 제 생각에는 그 곳은 남쪽에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두 명의 친구와 지금의 제 아내와, 텍사스에서 오신 한 남자분과 그의 아내와 함께. 그들은, 그들의 이름은 브레이스였습니다, 애드 브레이스. 그는 지금 이곳에서 아래쪽에, 밀타운 아래에 사는 농부입니다. 그는 서부에서 목장주였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여기로 이사해왔습니다. 저는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녀는 결핵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당신도 우리랑 함께 가서, 그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직접 보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브레이스 부인은 한번도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제 아내도 저와 함께 같습니다. 그런데 짐 와이즈하트 형제님, 기억하시죠, 거기 있는 그 교회의 나이든 장로, 나이든 집사님, 그도 그 일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낡은 로우드스터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 차에 다 포개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 앨버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도로표지판을 발견했고, 그런데 그곳은 사우쓰 보스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뉴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다시 제퍼슨빌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체국에 갔는데, 그들은, "사우쓰 보스턴은 헨리빌 위쪽에 있어요."하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빌로 올라갔고, 거기서도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도로에서 꺾으세요. 24 킬로미터쯤 가야되는데, 여기 이 작은 산들을 넘으면, 조그마한 장소를 발견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나치기 쉽거든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게엔 우체국도 있고 안에 별별 것이 다 있어요. 사우쓰 보스턴은, 이 작은 산들 너머에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만칠 천 에이커 되는 작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곳은 그 뒤에, 거기 있는 작은 산들 뒤에 있다는 겁니다.

28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9킬로미터쯤 운전을 했었는데, 저는 아주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하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죠?"하고 다들 물었습니다.

저는, "제게 말씀하시는 그 분께서, 제게 말씀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차에서 내려야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의 무릎 위에 앉아 있고, 아시죠, 그렇게들, 그 조그맣고 낡은 로우드스터 안에서.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렸고 차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 발 하나를 차 뒤 범퍼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주의 종이 뭘 알게 하시렵니까?"하고 기도했습

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그는..."하고 생각했습니다. 대개 그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는 제 자신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분 더 기다렸습니다.

29 저는 우연히 관심이 끌려서 저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여길 봐. 여기 그 오래된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 본... 그곳은 벙커 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쪽으로 바라봤습니다, 벙커 힐 그리스도인 교회,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앞에는, 묘지가 있고 묘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다 그 글자들을 적어두었죠."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생애 한 번도 그 고장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 위쪽으로, 어디도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과 숫자들을 가지고 여기로 와서, 그게 이 묘비에 적힌 것과 똑같지 않은지 보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똑같이 그 묘비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제대로 찾은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멈추게 한 건 주의 천사였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바로 그 곳을 지나쳤고,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타고 갔습니다.

곧 저는 한 남자분을 만났고, 저는, "사우쓰 보스턴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우회전으로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30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다다른 곳은, 제가 보니까,

저는 조그마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뭐랄까 조그마한 마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저는 쳐다봤습니다. 저는,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바로 저기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기에는... 저기, 저기 저 노랑색으로 칠해진 가게가 있죠."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 잘 보세요. 저 가게에서 한 남자분이 나오는데, 파랑색 골덴 가슴받이가 달린 작업복에, 흰 색 골덴... 아니 노란색 골덴 모자를 쓰고, 흰 콧수염을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방향을 말해 줄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말을 잘 꾸며대는 사람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게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앞에다 차를 대는데, 파란색 골덴 작업복 바지를 입고, 노란색 골덴 모자를 쓰고, 흰 콧수염을 기른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선, 브레이스 부인은 기절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해롤드 네일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그러죠. 남쪽에서 오셨습니까?"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말하길, "당신은 그곳을 지나왔어요. 저 길 아래서 800미터쯤 되는 곳인데, 회전을 해서 좌측 첫 번째 길입니다. 올라가시면, 커다란 빨간색 외양간을 보게 될 텐데, 그 빨간 외양간에서 회전하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 좁은 사잇길과 같은 도로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집이죠."

저는, "그래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그러죠?"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죠. 안 그래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께서 그 애를 고쳐주실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상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네일 부인이 다시금 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거기로 올라갔고, 그 마당 안으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차에서 나와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시죠, 그게 있었던 그 장소로. 그런데 몸집이 큰 젊은 여자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하고말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안녕하세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하고 말했고,

"저는-저는 빌 형제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 저-저-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제 편지 받으셨나요?"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부인. 받았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해롤드 네일 부인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 네일 부인,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 이 분들은, 부인의 딸을 위해 기도하려고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네."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은 곧 나을 겁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구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부인."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여자분이 안내하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함께 간 사람들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가 그 홀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었을 때, 크고,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벽에는 노란색 신문... 아닌 노란색 벽지, 빨간색 무늬들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라는 판이 있었고, 낡은 놋쇠 기둥 침대; 왼쪽에는 장작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침대가 있었고, 거기에는 이 남자애 같아 보이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31 이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방의 구석에 떠 있으면서, 제 몸이 그 침대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배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네일 부인은 방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는, 다시,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그 부인은 좀 약한 분 같았습니다, 다시 기절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네일 형제님은 그녀를 깨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연로한 짐 형제님은 거기 서서, "주님을 송축합니다,"하고 말하면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여러분 모두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쳐다보았고, 그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수했고, 그녀의 배에 이렇게. 저는, "주님, 저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32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소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네일 부인이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녀는 졸도 기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침대에서 펄쩍 일어났고, 그녀의 오른쪽 다리 잠옷바지가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에서 보였던 것과 똑같이. 그러자 거기에 소년이 아닌 소녀의 동그란 무릎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네일 부인이 다시 기절했습니다. 아시겠죠. 부인은 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서, 그 소녀가 침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옷방으로 들어갔고, 울면서, 자기 키모노 옷을 걸치고는, 머리를 빗으면서, 다시 걸어나왔습니다. 그녀의... 그 장애... 그런데 그녀의 한 쪽 손도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 쪽이. 그런데 그 장애가 있던 손으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애를 여럿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저는 그녀의 이름이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일, 누구나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해롤드 네일. 그런데 그 환상들은 다 사실입니다.

33 저는 그 장소를 댈 수 있고 일어났던 일들로 여러 책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데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사실입니다, 베일 형제님.

저는 실패할 겁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실패자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베일 형제가, "머럴의 철자를 말해 주세요." 한다-주]

M-e-r-r-e 하고 l 자 두 개.

["저는 그게 거기 아래 부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네일은 N-e-i-l였나요?"] N-a-i-l입니다.

["브레이스, B-r-a-c-e입니까?"]

B-r-a-c-e, 애드, 애드 브레이스입니다.

["이제 다 받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래함 스넬링은요?"]

그래함, G-r-a-h-a-m.["거기엔 'n'이 들어 있습니다."] S-n-e, 그리고 l 두 개, i-n-g.["오, 스넬링요. 네, 알겠습니다."]